

“KIA, 올해는 다를 겁니다”



24일 오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ECC 삼성홀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미디어데이 & 팬페스트' 행사에서 KIA 선동열 감독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9개구단 '미디어데이'

선동열 “선수들, 흘린 땀만큼 성과 있을 것”

김응용 “승률 5할 목표...우승 후보는 KIA”

“올해는 우리 팀을 지켜봐 주세요.” 프로야구 9개 구단 사령탑과 주축 선수들이 2014시즌 개막에 앞서 24일 이화여대 ECC 삼성홀에서 미디어데이&팬페스트 행사를 하고 시즌 준비 상황과 각오 등을 밝혔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29일 막을 울려 7개월여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2년 연속 4강에 실패하며 자존심을 구겼던 KIA 선동열 감독은 가을 야구를 약속했다. 선동열 감독은 “말 좀 아끼고 싶다. 마무리 훈련부터 스프링캠프 기간까지 우리 선수들이 땀을 많이 흘렸다. 새 구장에서 팬 여러분과 가을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통합 우승(정규리그·한국시리즈)의 금자탑을 쌓

은 삼성의 류중일 감독은 “3년 연속 우승의 기쁨을 잠시 내려놓겠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선에 서도록 하겠다”며 자세를 고쳐잡았다.

한국시리즈 준우승 후 자유계약선수(FA)를 모두 놓치는 등 전력 누수가 심했던 두산의 송일수 신임 감독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두산을 꼽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야구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LG를 11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시킨 김기태 감독은 “올해는 좀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시범경기에서 최하위에 머문 롯데의 김시진 감독은 “롯데 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범경기 별거 아니다'라는 것”이

라는 말로 팬들을 안심시키고서 정규시즌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각 팀 사령탑 사이에서 다크호스로 주목을 받은 NC의 김경문 감독은 “올해는 다크호스로 한국프로야구에 바람 한번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포스트시즌 진출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SK 투게더”로 팀을 강조한 이만수 SK 감독은 “SK의 4강 진출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물풍을 일으켰던 넥센 영결 감독은 “작년 시즌 마지막에 아쉬운 면이 있었다. 올해 선수들이 집중력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해줘 감독으로서 희망적이다. 선수들이 많이 보강돼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넥센만의 즐겁고 재미있는 경기를 약속했다.

KIA를 우승후보로 언급한 김응용 한화 감독은 “작년에 성적이 좋지 않아 할 말이 없다. 작년에 워낙 성적이 나빠 솔직히 올해는 승률 5할을 목표로 하고 싶다.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스피드 KIA’ 가을야구 희망 봤다

시범경기 결산

압도적인 질주는 없었지만 희망과 가능성을 남겼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23일 LG 트윈스와의 경기를 끝으로 시범경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시범경기에 비하면 폭발적인 전력은 아니었지만 만족할 만한 리허설이었다.

공격은 더욱 빨라지고 견고해졌다. ‘김주찬 효과’로 괴력의 타력을 보여줬던 지난 시즌에 비해 올 시즌에는 ‘이대형 효과’가 있었다. 또 지난해 신종길에 화려한 리허설을 치렀다면 올 시즌에는 김주형이 심상치 않았다.

FA 다크호스 이대형은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고항에 연착륙했다. 출루율을 가장 고민하겠다는 이대형은 두 번에 한번 1루 베이스를 밟으며 출루율(0.514) 1위를 기록했다. 득점(11)도 전체 1위다. 도루는 2개에 그쳤지만 빠른 발을 이용한 이대형표 안타와 득점으로 박수를 받았다. 덕분에 김주찬·신종길·김선빈·안치홍이 버티고 있는 KIA의 스피드는 리그 최강으로 업그레이드됐다.

‘모범생’으로 거듭난 김주형은 공격에 견고함을 더했다. 김주형은 팀에서 가장 많은 타석과 수비를 소화하면서 꾸준함을 보여줬다. 5개의 2루타 포함 12개의 안타로 이대형(0.357)에 이어 0.353의 타율



양현종



김주형

다운 면모와 노련함을 과시하면서 외국인 선수 특수를 예고했다.

그럼에도 마운드는 여전히 고민 중이다. 송은범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지난해 부진이 잔상으로 남아있다.

김진우와 심동섭이 각각 좋아리 타박상과 팔꿈치 주사치료를 기량 테스트를 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 현재 몸 상태는 ‘이상무’. 그러나 마운드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9이닝 11실점이라는 ‘911 대참

이대형 성공 안착...김주찬 등 스피드 라인 ‘최강’
김주형·이범호·나지완·강한울 등 공격라인 조화
양현종 14.1이닝 무실점 패투...불펜 고민은 여전

를 기록했고, OPS(0.950)도 팀 내 1위다.

주장 이범호의 방망이(0.348·출루 2개)도 날카로웠고 타율(0.226)은 낮았지만 가장 많은 타점(9개)을 올린 나지완의 집중력도 눈에 띄었다. 공·수·우에서 모두 선배들을 긴장시킨 신인 강한울은 공격 조합의 폭을 넓혔다.

마운드에서는 양현종이 돋보였다. 14.1이닝 무실점 행진. 불넷은 두 개로 묶으며 에이스 윤석민의 공백을 잊게 한 피칭을 잇달아 선보였다. 마무리 어센시오가 불안하지만 홀튼은 일본 다승왕 출신

사’는 전화위복이 됐다. KIA는 19일 SK전에서 9회에만 11점을 내주는 불소를 선보였다. 마운드 약점이 노출됐지만 이후 4경기에서 6실점만 기록하는 잔물투구가 KIA 위기론을 잠재웠다. 5선발 경쟁을 놓고 벌어진 임준섭과 박경태의 경쟁도 희망적이었다.

불펜 고민은 남아있지만 안정감 있게 전력을 꾸린 시범경기. KIA는 25일 NC와의 야간경기에 이어 26일 한화와 연습경기를 갖고 최종 라인업을 구성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랑이 군단 무사고·우승 기원합니다”

KIA, 27일 챔피언스필드서 고사

새로운 안방에서 새출발 하는 ‘호랑이 군단’이 무사고 및 우승기원제를 지낸다.

KIA 타이거즈가 27일 오전 11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고사를 지내고 2014 시즌 무사고 및 우승을 기원한다.

2008년 이후 처음 마련되는 자리다. 당시 우승기원제에서는 고인이 된 ‘특급 용병’ 리

마와 발데스 등 외국인 선수들도 큰 절을 해 동료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고사 소식에 가장 반색하는 이는 매년 끊이지 않는 부상소식에 “고사라도 지내보자”며 환세를 쉬던 팬들이다. 시범경기 마지막 날이었던 23일에도 신종길에 LG 신인 좌완 임지섭의 공에 손을 맞으면서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양현종은 공을 잡다 근육이 놀라면서 갑작스레 마운드를 내려왔다. 나지완도 허벅지 통증으로 수비 도중 교체되는 등 팬들은 여러차례 가슴을 쓸어내렸다.

올해는 제발 부상없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팬들과 새마음으로 새출발 하는 자리를 마련한 KIA. 고사의 ‘효험’이 있을지, KIA 팬들에게 올 시즌 이색 흥밋거리가 생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